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3, pp. 146-151,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3.146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에 대한 융합적 고찰

문혜경[1], 정미란[2], 노원정[3*]
[1]호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f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Nurses

Heakyung Moon[1], Miran Jung[2], Wonjung Noh[3*]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oseo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3]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행문헌고찰을 위하여 국내 3곳, 국외 1곳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간호사',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nurse', 'stress', 'self-efficacy'를 주요 검색어로 검색하였다. 총 18편의 논문이 대상 문헌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9편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도구의 선택에 있어 번안자에 따라 문항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다른 논문들과의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18편 논문의 초록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는 직무스트레스였고, 이를 기준으로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출현 빈도수가 높은 주요어는 자기효능감, 의료기관, 상관성이었다. 해당 주요어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 도구 개발을 통한 영향요인 탐색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사,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텍스트 네트워크, 융합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elf-efficacy based on the related research review and text network analysis. For the literature review, we performed the search process at three domestic and one foreign database using key words, 'nurse', 'stress', 'self-efficacy'. A total of 18 paper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literature. Nine of these studies repo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urses' job stress and self-efficacy. It was difficult to compare between studies' results because of the optional usage of the questionnaires. In addition, a text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by extracting keywords from the 18 papers. The keyword with the highest frequency of appearance was job stress, and the main words with high frequency of emergence were self-efficacy, hospital, and correlation.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words, it is proposed to perform a survey on the influence facto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measurement.

Key Words : Nurse, Stress, Self-efficacy, Text network, Convergenc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Gacho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5 (GCU-2015-0048).
*Corresponding Author : Wonjung Noh (wjnoh@gachon.ac.kr)
Received January 28, 2019 Revised February 18, 2019
Accepted March 20,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1. 서론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는 병원 인력 구성 중 32.8%로 가장 많은 인력 비율을 차지하며 병원경영 측면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강조되고 있다[1]. 하지만 간호사는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교대 근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다양한 간호 대상자들의 요구 충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업무의 성과를 증가시키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발생시킨다[4].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우울감과 소진 등으로 인하여 이직과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을 수반하여 복합적인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나타내고 간호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료 간호사와 조직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5,6].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소진은 이직으로 이어져 2016년 한해 평균 이직률이 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간호사의 이직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질 낮은 간호 수행 및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결국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또 다른 이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8,9]. 이렇게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이직의도, 소진 및 우울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또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영향 요인들은 조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 차원의 해결방법으로 긍정심리 프로그램 및 마음 챙김 등 다양한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10,11], 자기효능감은 목표한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최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적 대처기전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12].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동적 변화를 중재하는 기제로,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간접경험에 의해서도 효능감이 증진되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결국,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때 도전 가능한 긍정적 태도와 해결 가능한 강한 자기 신념을 갖게 한다[14,15]. 이러한 개념은 간호영역에서도 적용되어 간호사는 간호 수행 중 발생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도 효과적인 대처를 통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는 낮추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6].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탐색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17,18].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각각의 연구를 심도있게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면, 최근에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주요어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융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학문 동향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19, 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고찰 및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문헌들의 각 개념을 측정한 도구와 관련 변수별 분석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효능감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선행 문헌의 특성을 도구와 변수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대상 논문의 초록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핵심키워드와 주제를 탐색하는 이차 문헌분석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논문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외 학회지에 출간된 논문이었다. 국내 문헌 검색을 위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호사',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주요

검색어로 검색하였다. 또한, 국외 문헌 검색을 위해서는 MEDLINE을 활용하여 'nurse', 'stress', 'self-efficacy'를 주요 검색어로 검색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의 선정기준은 1)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2)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이용한 연구 3)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술된 연구였고, 배제 기준은 1) 질적 논문 2) 학술대회 초록의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 연구물 3) 중복 출판된 연구 및 회색 문헌이었다.

대상 논문은 국내에서 RISS에서 52편, KISS에서 20편, 국회도서관에서 24편이 검색되었고, 국외에서 MEDLINE에서 454편이 검색되어 총 550편이었다. 전체 연구 중 이 중으로 추출된 연구 49편을 제외하여 501편의 논문을 1차로 선정하였다. 중복문헌 제거 후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483편의 연구를 제외하였으며 제목과 초록만으로 선정기준의 판단이 불분명한 연구에 대해서는 전문을 확보하여 선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8편(국내 17편, 국외 1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절차는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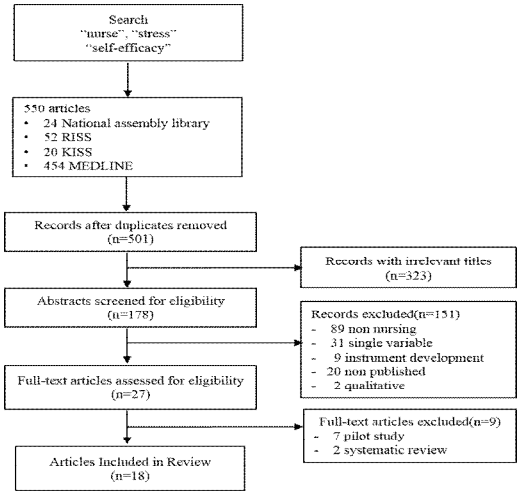

Fig. 1. Search flow

2.3 자료 분석 방법

최종 선정된 18편의 문헌분석을 위해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이 독립적으로 코딩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쳐 재평가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대상 논문의 초록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단·복수, 대소문자 등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 정제를 위하여 표준화 작업과 명사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부사, 조사 등과 같이 의미가 없는 단어의 제외 작업을 시행하였다. 모든 대상 논문이 간호사와 관련된 논문이므로 '간호사' 는 키워드에서 제외하였다.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관계를 기준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Knowledge Matrix plus 0.80과 VOSviewer 1.6.9를 활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일반적 특성

최종 선정된 18편의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11~2015년에 출판된 논문이 9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18편(100.0%) 모두 조사연구였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은 7편(38.9%)이었고, IRB 승인 여부를 기재한 논문은 9편(50.0%)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201~300명이 10편(55.6%)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Included studies' characteristics (N=18)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10	5 (27.8)
	2011~2015	9 (50.0)
	2016~	4 (22.2)
Funding source	Yes	7 (38.9)
IRB	Yes	9 (50.0)
Number of participants	100~200	8 (44.4%)
	201~300	10 (55.6)

3.2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분석 대상 연구 중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도구는 5개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Sherer et al.(1982) 의 도구가 10편(55.6%)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또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도구는 10개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Gu & Kim(1984)가 4편(22.2%), Chang et al. (2004)이 4편(22.2%)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Gu & Kim (1984) 도구는 각 연구에서 23~68문항으로 수정되어 사용하였고, Chnag et al.(2005)의 도구는 4개의 모든 연구에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Table 2. Measurement of variables (N=18)

Category		N (%)	Number of items
Job stress	Sherer et al. (1982)	10 (55.6)	11~23
	Kim & Cha (2003)	3 (16.7)	24
	others (3)	5 (27.8)	10
Self-efficacy	Gu & Kim (1984)	4 (22.2)	23~68
	Chang et al. (2005)	4 (22.2)	24
	others (8)	10 (55.6)	9~55

3.3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분석

대상 문헌의 변수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무 스트레스는 13편(72.2%)이었고, 자기효능감은 16편(88.9%) 이었다. 또한, 종속변수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5편(27.8%), 자기효능감 2편(11.1%) 이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15편(8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9편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elf-efficacy (N=18)

Category		N(%)
In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13 (72.2)
	Self-efficacy	16 (88.9)
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5 (27.8)
	Self-efficacy	2 (11.1)
Relation between variables	Correlation	15 (83.3)
	Causation	3 (16.7)

최종 선정된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는 Fig. 2와 같다.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는 'job stress'로 73회 등장하였고, 'self-efficacy' 69회, 'job satisfaction' 26회, 'burnout' 24회 순이었다. 그중에서 출현 빈도수가 높은 'job stress'를 기준으로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동시 출현 빈도수는 'self-efficacy'가 43회이었고, 'hospital' 41회, 'correlate' 39회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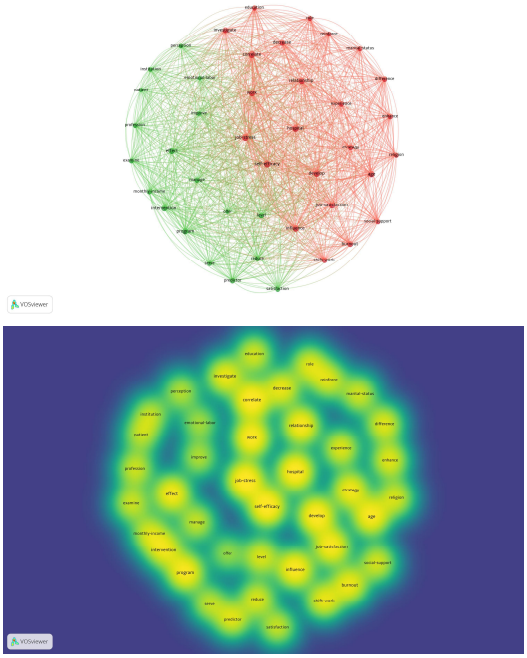

Fig. 2. Keyword network visualiza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대상 논문 18편(100%) 모두 조사연구로,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중재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로 자기효능감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는 청소년 대상과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10,11].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주 2회, 총 4주로 구성되었으며, 간호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역시 주 2회, 총 4주 프로그램 구성되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이었으므로[10,11], 추후 간호사 대상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에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실무적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코호트를 구성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의 측정 도구에 따른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20,21]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22,23]가 다양하였다. 특히,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의 경우에는 국내 연구자가 번안 작업을 하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면서, 원도구의 문항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의 최종문항 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 선택 및 탈락의 사유나, 국문화 한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동일한 원도구를 사용한 연구 간의 결과비교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국외 도구의 번안 및 수정·보완 단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필요함과 더 나아가 한국형 도구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의 변수별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모두 종속변수보다 독립변수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고,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연구마다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각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의 문항 수가 다양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24]. 또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직무 스트

레스와 자기효능감의 변수 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일치하지 않아[17,25,26], 두 변수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출현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는 'job stress' 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동시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self-efficacy', 'hospital', 'correlate'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가 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27]. 추후 시행되는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뿐 아니라 보건소, 너싱홈,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빈도 키워드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 수행이 상관관계 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통해 연구 동향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키워드간의 연계성을 시각화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켰다[28,29].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3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각 개념을 측정한 도구와 관련 변수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 도구의 개발과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1] S. K. Park. (2014). *The study on the status of the nurse activity.* Seoul: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96). *Stress at work, world labour report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3] H. Y. Lim &, Y. C. Cho. (2018). Effects of Job Stress, Fatigue,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264-274.

[4] J. J. Cho. (2013). Stress and disease: evidence based review. *Journal of Korean Medicine Association, 56*(6), 460-461.

[5] S. J. Jeong. (2009).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types, interpersonal relations and depression for nurse in hospital setting.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14(1),* 131-145.

[6] K. J. Choi. (2007). *The factors that affect burnout of nurses.*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7]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5). *2015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Seoul.

[8] G. J Lee & S. W. Hwang. (2015). Analysis of Reemployment Status of Nurses Participated in Reemployment Support Program.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5(5),* 386-402.

[9] M. J. Lee. (2015). *Job Stress and Stress Management of Shift Working Nurses.*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Daegu.

[10] Y. J. Jeong, S. Min, Y. J. Ha, E. A. Kim, & H. J. Na. (2010).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y program on the sense of purpose, self-efficacy of adolescence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0(3),* 398-411.

[11] Y. R. Yeong & K. B. Choi. (2013), The Effect of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s on Nursing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104-113.

[12] D. Duggleby, D. Cooper, & K. Penz. (2009). Hope, self-efficacy, spiritual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11),* 2376-2385.

[13] D. Y. Lee. (1997).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Children'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14]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15]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6] N. H. Lee.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of Psychiatric Nurses, Job Stress and Burnout. *Health & Nursing, 23(2),* 47-59.

[17] Y. S. Bong, H. S. Soh, & H. S. Yoo.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3),* 425-433.

[18] K. H. Lee & J. S. Song. (2010).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1),* 17-25.

[19] Y. C. Choi & S. J. Park (2011).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n Administration: Application of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1),* 123-139.

[20] Y. Lee, J. Kang & Noh. W. (2019). Research Trends Review of Undergraduat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to Develop the Entrepreneurship Progra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148-154.

[21]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22] M. O. Gu & M. J. Kim. (1984).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es measurement tool for staff nurses working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 Academy of Nursing, 14(2),* 28-37.

[23] S. J. Chang, S. B. Koh, D. Kang, S. A. Kim, M. G. Kang, K & C. G. Lee, et al. (2005).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 297-317.

[22] A. Y. Kim & J. E. Cha. (2003).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eacher-efficacy and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2),* 25-43.

[25] J. W. Lee. (2014). Influences of job stress, coping, self-efficacy on burnout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5),* 1003-1012.

[26] M. Y. Han, et al.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spiritual well-being, and job stress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 21-28.

[27] E. Y. Lee & K. H. Shon. (2015).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with job stress in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3),* 87-95.

[28] F. N. Silva, D. R. Amancio, M. Bardosova, L. Costa & O. Jr. Oliveira. (2016). Using network science and text analytics to produce surveys in a scientific topic. *Journal of Informetrics, 10(2),* 487-502.

[29] W. J. Lee & T. G. Kim. (201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in the Dyslexia and Learning Disability Trough a Keywor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 91-98.

[30] S. Y. Bae & S. H. Kim. (2018).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Justice, Self Esteem and Self Efficacy on Occupational Stress among Some Regional General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5),* 309-315.

문 혜 경(Moon, HeaKyung) [정회원]

- 199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10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현재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임상간호
- E-Mail : hkyung486@hoseo.edu

정 미 란(Jung, Miran) [정회원]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0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7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발달, 아동간호
- E-Mail : rcuty@bu.ac.kr

노 원 정(Noh, Wonjung) [정회원]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0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성과, 간호관리
- E-Mail : wjnoh@gachon.ac.kr